

카드사 CEO 간담회

모두 말씀

2018.6.26.(화) 14:30~15:30

금융위원회 위원장
최종구

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발언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I. 인사 말씀

□ 안녕하십니까.

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입니다.

○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주신
신용카드사 대표님들과 여신금융협회장님께
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작년 9월 카드사 간담회에서 경쟁력 강화 방안을
논의한 이후, 10개월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.

□ 그때 계셨던 분들은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고,
또 새롭게 오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.
앞으로 카드산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실 것으로
기대합니다.

□ 그동안 취약·연체 차주 지원, 법정 최고금리 인하,
IC단말기 전환 등 중요한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
카드업계에서 적극 협조해 주셨습니다.
이 자리를 통해 감사 말씀드립니다.

II. 카드산업 현황 및 인식

□ 카드시장 규모는 ‘17년 788조원으로

‘08년(384조원) 대비 2배 이상 크게 성장했습니다.

* 카드결제 규모(조원) : (‘08) **384.1** (‘11) 520.2 (‘13) 581.6 (‘15) 665.9 (‘17) **788.1**

□ 카드이용 확대에 따라 카드업계는 매년 2조원

내외의 수익을 창출하는 등 경영실적이 견실하고,

* 카드사 당기순이익(조원) : (‘13) 1.8 (‘14) 2.2 (‘15) 2.0 (‘16) 2.0 (‘17) 2.2

○ 연체율, 자본비율 등 건전성 지표도 안정적인
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.

* 연체율(%) : (‘16말) 1.44 (‘17말) 1.37, 자기자본비율(%) : (‘16말) 25.5 (‘17말) 24.1

□ 우리나라는 국민 대부분이 카드를 사용하고 있고,

어디서나 카드이용이 가능할 정도로

카드는 국민 생활속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.

* 국민 1인당 평균 4장의 카드를 보유하고 있고, 카드가맹점 수는 267만개

□ 이처럼 우리나라 카드산업은 다른 금융산업에 비해

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,

○ “국민과 함께 한다” 는 인식하에,
큰 부담없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
제도와 관행 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.

Ⅲ. 국민부담 경감 및 불편 해소 방안

〈밴수수료 체계개편 방안〉

- 그간 업계와 당국이 실무적으로 준비해 왔던
밴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이
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
- 금번 조치로 편의점, 슈퍼마켓, 제과점, 약국 등
빈번한 소액결제로 상대적으로 수수료 부담이 컸던
골목상권의 부담이 크게 경감되고,

* 편의점, 슈퍼마켓, 제과점, 약국 등의 수수료율은 평균 0.2~0.6%p 인하 추정

- 가맹점간 수수료 격차도 상당부분 해소되어
수수료 부담의 형평성도 크게 제고될 것입니다.

- 이와 함께, 밴수수료 단가 하락 추세를 선제적으로
반영하여 카드수수료 상한을 기존 2.5%에서 2.3%로
인하하기로 결단해 주셔서,

- 소상공인들의 경영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고,
카드업계 신뢰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
것으로 기대합니다.

〈카드이용 관련 국민불편 해소 방안〉

- 그동안 간편결제 허용('14.12월)*, 모바일카드 당일 발급('16.3월), 무서명거래 활성화('16.5월)**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으로 일반 국민들의 카드이용 불편은 많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.

* 사전에 카드정보를 등록하고, 결제시에 비밀번호 만으로 결제

** 5만원 이하 카드결제에 대해 카드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생략

- 금번에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던 청소년, 고령자, 장애인 등의 카드이용 불편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.

- 청소년에 대한 체크카드, 후불교통카드 발급 허용은 합리적 용돈관리와 대중교통의 편리한 이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.

- 고령화 사회에 맞춰 고령자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서식 및 느린말 ARS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,

- 특히, 금융 이용에 어려움이 큰 장애인 분들에게는 화상 수화 등 비대면 발급 서비스 제공, 전용 상담채널 개설·운영 등을 통해 불편함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.

- 그동안 여신협회와 카드업계에서 여러 방안을 제안해주고 실무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,
 -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잘 정착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, 대표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.

IV. 카드수수료 개편 기본 원칙

- 다들 아시다시피 올해 카드업계에는 카드수수료를 재산정이라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.
- 카드수수료 문제는 소상공인, 소비자, 카드사 등 국민 다수의 이해(利害)와 밀접하게 연결된 만큼,
 - 전문가적 식견을 바탕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이해관계 조정을 거쳐 결정되어야 합니다.
- 이에 금융위 주도로 관계부처, 전문가 및 카드업계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·운영 중에 있습니다.
 - 금융연구원의 심도 있는 사전연구와 공청회를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합리적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.

□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은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하에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.

- ① 우선,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카드이용으로 혜택을 받는 카드사, 가맹점, 소비자, 국가가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.
- ② 수익자 부담 원칙에도 불구하고, 경영여건이 취약한 영세가맹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.
- ③ 카드수수료 조정은 카드사의 부담 여력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, 부담 여력은 정교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산정·검증할 것입니다.
- ④ 다수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이므로 공청회 등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입니다.
- ⑤ 마지막으로, 카드수수료는 의무수납제도, 우대수수료 제도 및 매출세액공제제도 등 여러 제도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만큼,
 - 제도간 관계를 고려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것입니다.

V. 맺음 말씀

- 여러분, 중국의 명저인 노자(老子)에는
“뿌리가 깊고 튼튼해야(深根固柢), 오래도록 번영할 수 있다(長生久視)” 라는 글귀가 있습니다.
- 금융산업의 건실한 성장을 위해서는 국민의
‘믿음과 신뢰’ 라는 튼튼한 뿌리가 필요합니다.
 - 특히, 카드산업은 다른 금융산업에 비해
국민의 일상생활과 보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,
믿음과 신뢰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
- 금번 밴수수료 체계 개편과 국민 불편 해소 방안은
카드산업의 뿌리를 보다 깊고 튼튼하게 하는
계기가 될 것입니다.
- 앞으로도 국민의 지속적인 믿음과 신뢰를 얻기 위해
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이
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주시고,
늘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.
 - 정부도 그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적·제도적 지원을
아끼지 않겠습니다.